

독도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과 사회적 요인 고찰*

임 영 언** · 김 태 영***

(e-mail: yimye@hanmail.net · taeyoung@gwnu.ac.kr)

< 목 차 >

- | | |
|---------------------|-------------------------|
| 1. 서론 | 3. 국내 독도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
| 2. 기존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 3.1 독도 관련 연구 검색결과 분석 |
| | 3.2 독도 연구의 키워드 검색과 내용분석 |
| | 4. 결론 및 시사점 |

키워드 : 독도(Tokdo), 사회적 요인(Social Factors), 정치적 요인(Political Factors), 다양화(Diversified)
영토문제(Territory Problems), 국제법(International Law),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1. 서론

한일관계에 있어서 독도를 둘러싼 발언이나 논쟁은 1945년 이전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수립 이후 사토 에이사쿠(佐藤 栄作) 일본수상의 독도 일본영토 발언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후 일본외무상이나 총리에 의한 독도의 일본 영토주장이나 영유권주장은 일본에서 일상화된 발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독도가 일본의 자국영토라는 상투적인 발언은 1995년 한국정부의 독도접안시설 설치와 더불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정부는 1995년 한국정부의 독도 접안시설 설치 이후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996년부터 중등학교에서 독도를 일본 자국령으로 표기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독도에 가까운 시마네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5086).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연구교수(제1저자).

***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일본학과 교수(교신저자).

현이 독도영유권에 대한 특별결의안을 채택하고 2005년부터는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조례를 제정하여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문부성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교과서에 명기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고 2005년도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을 기술했다. 2008년도에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영유권 명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2012년에는 외교청서에도 독도영유권을 기술했다.

이상과 같이 일본정부는 외무상과 총리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던 시대에서 일본 외무성, 방위청, 문부성, 지방자치단체, 의원연맹,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통해 전 방위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지배적 인식을 강화해오고 있다. 이것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과거 역사적 법적 근거의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각종 일본교과서와 백서의 내용에서 일본자국령이라는 기술과 인식확대를 통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보다는 인쇄활자와 주입을 통한 인지적 지배를 강화하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는 한국정부의 전략이나 정책은 어떠한가? 이에 대해서 한번 짚 명확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독도연구와 관련하여 역사적 관점보다는 사회적 실효지배는 1993년 김영삼정부에 의한 문민정권의 탄생과 독도접안시설의 건설(1995년 12월-97년 11월), 그리고 일반 관광객의 입도허가(2005년 3월 신고제, 2009년 6월 무제한) 등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 8월 10일 이명박대통령의 독도상륙은 독도에 대한 한국영토주권을 강화하는 사건으로 주목받았다.¹⁾

사카모토(2016)는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해 영토문제로 접근하고 있지만 한국 측은 역사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하면서 독도를 역사적인 문제로부터 진화해 온 영토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²⁾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과연 올바른 주장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독도를 둘러싼 한일논쟁에 대하여 일본은 국제법적인 영토문제로 확대 주장하는 측면이 있었고 한국은 실효적 지배 측면의 역사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향은 독도의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조용한 외교’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독도를 영토

1) 김성은(2013) 「부산지역 언론의 독도 관련 보도경향과 인식: 이명박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기점으로」 『서강인문논총』 38, 서강대인문과학연구소, pp.397-436.

2) 坂本悠一(2016) 「近現代における竹島・独島領有問題の歴史的推移と展望—ナショナリズム・グローバリズム・ローカリズムの交錯—」 『社会システム研究』 32, 立命館大学社会システム研究所, pp.16-17.

문제에서 영토분쟁으로 보는 시각을 부각시킴으로써 각 일본정부부처가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 14일 일본문부성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하여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교과서에 기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교과서에서 본격적으로 가르치도록 지시했다.³⁾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상호 접근 방식과 인식의 차이는 독도의 외교 전략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인식의 확대차원에서 한일 간의 전략적 차이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독도에 대한 국제법적 영유권 논쟁과 역사적인 사료를 둘러싼 고유영토 문제에 대한 논쟁보다는 1991년 이후, 특히 1993년 이후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독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영유권 구축이라는 전략적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특히 한국학계에서의 연구동향의 차이를 통해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기존 연구에서 최진옥(1996), 허영란(2002), 한철호(2007), 현대승(2014) 등의 독도관련 연구동향의 성과들을 참조하여 국내 독도 관련 연구에 대한 키워드 검색 및 내용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독도관련 연구동향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와 국립중앙도서관(NLK: National Library of Korea)에서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독도관련 용어로는 ‘독도역사’, ‘독도분쟁’, ‘독도영유권’, ‘독도영토’문제, ‘독도국제법’, ‘독도교육’, ‘독도교과서’ 등을 키워드로 선정하여 검색하였다.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양측 독도 관련 연구동향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본 논문에서는 우선 국내 독도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방향성에 대한 대안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일본에서 독도관련 발언 변화의 추이⁴⁾

연월일	독도관련 주요 주장내용
1905년 2월 22일	시마네 현(島根県)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고 본 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는 내용 고시, 1906년 4월 시마네 현 ‘독도는 시마네 현 소관’ 한국정부에 통보
1953년 5월	일본인 독도 상륙 위령비 파괴, 울릉도 주민 ‘독도의용수비대’ 결성 격퇴

3) 読売新聞 (2016.02.14.) 보도기사 참조.

4) 일본의 독도도발, 망언일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rthurphilip&logNo=10145634204>(검색일 2017.05.16.), 산케이신문 독도문제기사:

http://japwar.com/bbs/board.php?bo_table=b001&wr_id=1060&page=34(검색일 2017.05.16.)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작성.

1965년 9월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수상 “독도는 예부터 일본 영토라는데 의심이 없다.”발언
1977년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총리 “독도는 일본 땅” 발언
1984년 2월	아베신타로(安倍晋太郎) 외무장관 “독도는 국제법상으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 영토이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며 평화적 수단으로 꾸준히 해결하겠다.” 발언
1986년 9월	구라나리 외상 한일외무장관 회담에서 “독도는 일본영토임을 제기한다.” 발언
1992년 4월	일본극우단체 ‘대일본정의국수회’ 2명 한국영사관 난입 “독도는 일본 땅” 난동
1993년	한일외무장관 회담에서 무토 외무장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는 일본영토임에도 한국이 점령하고 있어 극히 유감”표명
1996년 2월 1일	일본 문부성 검정 중교교 지도5종, 독도를 자국령으로 표기
1996년 2월 22일	시마네 현 마을의회 의장회, 독도 일본 영유권 확립요구 특별 결의안 채택
1996년 2월	이케다 외무장관 ‘독도는 국제법상 일본영토이며 한국정부가 이곳에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주권 침해’
1996년 2월	연립여당 ‘독도가 1905년 일본영토로 등록돼 시마네 현이 관할토록 결정했는데도 한국 측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인정했다. 한국 측의 독도 접안시설공사에 적극 대처하라.’발언
1996년 10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총리 독도영유권 주장
1996년 10월 22일	하시모토 히로시(橋本 亨) 일본외무성 대변인 “분명히 독도는 우리영토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변함이 없다.”발표
1996년	자민당 외교 조사회 “독도는 틀림없는 일본 영토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 때 독도가 한국수역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발언
1997년 11월	일본정부 한국 독도 접안시설 공사 중단 요구
2000년 9월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일본 고유영토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발언
2001년 2월	스미타 노부요시(澄田信義) 시마네 현 지사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이자 시마네 현 5개 촌에 속해 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한국이 불법 점거해 일본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진정으로 유감이다”발언
2004년 1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총리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계획에 “독도는 일본영토이며 한국은 잘 분별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발언
2005년 3월 10일	시마네 현 의회 상임위 총무위원회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본회의 상정
2005년 3월 16일	시마네 현 의회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상정 통과.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일본대사 “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이다.”발언
2005년 8월 2일	‘독도 영유권’ 기술을 담은 2005년도 방위백서 발표
2006년 2월 22일	시마네 현 제1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
2006년 3월 29일	문부성 자국 고교교과서 제작출판사에 “독도는 일본 땅 명기할 것”요구
2006년 4월 14일	해상보안청 한국 측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포함하는 해양탐사 계획 IHO(국제수리기구)에 통보
2006년 4월 18일	일본 독도 인근 해양조사 측량선 출발, 차관급 협의 후 측량선 귀선
2008년 5월 18일	일본 언론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영유권’명기 방침 보도
2008년 7월 14일	문부성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영유권’ 명기 공식발표
2009년 7월 17일	일본방위백서 5년 연속 ‘독도는 일본영토’ 주장
2009년 12월 25일	문부성 고교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 ‘독도영유권’명기 가와바타 문부성 “독도는 우리의 고유영토로 정당하게 인식시키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발언
2010년 3월 30일	일본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2012년 4월부터 사용예정
2010년 4월 6일	‘독도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0년 외교청서 확정 발표
2010년 4월 7일	하도야마 유키오 총리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발언
2011년 3월 30일	일본중학교 사회교과서 독도왜곡검정 발표, 2012년 4월 일선학교 공식사용
2011년 4월 1일	‘독도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1년도 외교청서 확정 발표
2011년 7월 15일	자민당 신도요시타카 등 4명 ‘독도영유권’강화 견제를 위해 울릉도 방문계획 발표
2011년 8월 1일	자민당의원 신도요시타카 등 3명 김포공항 입국시도 실패
2011년 8월 2일	‘독도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1년도 방위백서 7년 연속 발표
2011년 9월 6일	겐마 고이치로 외무상 “독도가 법적 근거 없이 한국에 점거 지배되고 있다.”발언
2012년 1월 24일	겐마 고이치로 외무상 발언에 대한 한국정부 철회요구에 “철회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발언
2012년 2월 21일	시마네 현 오키(隠岐)섬의 마쓰다 가쓰히사(松田和久) 촌장 등이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에게 독도 소관조직 설치요구 건의서 전달 및 정부차원 ‘다케시마의 날’ 제정 요청

2012년 3월 14일	미조구치 켄베 시마네 현 지사 “오키 섬에 자위대 주둔 요청”
2012년 3월 27일	일본 고교 사회교과서 독도 왜곡검정 발표 39종 21종, 2013년 4월 일선학교 공식 사용
2012년 3월 28일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 기자회견에서 교과서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발언
2012년 4월 6일	외무성 2012년 외교청서에 ‘독도영유권’ 기술
2012년 4월 11일	국회헌정기념관 4/11도교집회 개최, 의원연맹과 시마네현민 주최 한국 독도 실효적 지배강화 비판, 일본정부 전담조직 설치, 다케시마의 날 행사확대 등 독도문제 적극 해결 촉구
2012년 7월 31일	2012년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 땅’ 주장
2012년 8월 8일	한국외교백서에 ‘독도는 한국영토’ 처음 항의
2012년 8월 10일	이명박대통령 독도방문, 신각수 주일한국대사 초치항의,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 귀국조치, 겐바 외무상 김성환 외교부장관 항의 진화
2012년 8월 11일	겐바 외무상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검토’ 발언
2016년 2월 14일	일본문부성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하여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교과서에서 가르치도록 지시

2. 기존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그러면 여기에서는 먼저 독도연구에 대한 국내동향과 현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45년 이후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정부의 인식과 갈등, 협상과 정책 등 다양한 주제들은 많은 학자와 연구자, 연구단체들의 참여한 대립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들 연구의 내용은 독도의 역사, 국제법적 근거, 한일정부의 정책과 입장, 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국내 정세에 따라 한일양국의 독도에 대한 접근방식이 달라져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동향의 분석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독도관련 연구동향에 대하여 최진옥(1996), 허영란(2002), 한철호(2007), 현대송(2014) 등은 시기별 연구동향을 제시하며 한국의 실효적 지배에 따른 독도에 대한 연구관심 퇴보와 새로운 사료발굴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성환(2014)의 연구는 단편적이기는 하나 2000년대 이후 사회과학분야에서 독도관련 연구 53개의 논문을 추출하여 그 중 28편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독도관련 일본 국민의식조사 및 여론동향에 대하여 정밀히 분석하여 대안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이와 같은 독도연구에 대한 시대별 연구동향과는 달리 국민적 여론 관심과 국가 정책의 반영측면에서 접근한 논문은 김수희(2011)의 “‘죽도의 날’ 제정 이후⁵⁾ 일본의 독도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라 할 수 있다.⁶⁾ 이 연구는 “이케우치

5) 본 연구에서는 독도를 가리키는 용어에 대해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고유명사의 의미에서 일본식 명칭의 ‘죽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의 영토임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모두 ‘독도로

사토시의 ‘석도’ 논의를 중심으로” 2005년 시마네 현에서 ‘죽도의 날’ 제정 이후 죽도문제연구회의 활동에 의해 죽도에 대한 일본국민의 관심과 인터넷 및 팸플릿 배포에 의한 일본정부의 정책 반영측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로는 송휘영(2015)의 “일본 시마네 현 독도정책의 동향과 방향”이라는 논문이다.⁷⁾ 이 연구는 일본 시마네 현의 독도시책과 동향을 분석하고 ‘죽도문제연구회’의 활동을 개괄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죽도연구회의 활동이 일본 외무성과 내각부 등 일본정부의 전체 기본논조로 자리 잡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2014년 중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과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발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의 중요한 성과는 시마네 현 ‘죽도문제연구회’가 제시한 영유권 논리의 기본 골격이 일본 외무성의 현재 주장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죽도문제연구회의 연구, 외무성의 정책대응 및 홍보, 문부성의 교육 및 계발이 협치라는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내각부와 총리 관방실까지도 독도외교대응의 지원 시스템에 포함되고 있다.

이전과는 새로운 관점에서 독도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 연구는 문철영(2013)의 ‘독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연구이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영남대독도연구소의 연구성과를 소개하면서 독도교육을 위한 ‘내러티브’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⁸⁾ 이 연구에서 그는 독도의 자연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이나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법제적인 접근들은 한국인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더하여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우리자신들의 이야기로 독도를 내재화하여 한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독도로 만들어 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독도교육을 통한 모두에게 친근한 독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동의가 가능하지만 독도에 대한 영웅전이나 위인전식 접근은 지금까지 시도되어온 측면이 존재한다는 데 참신함이 부족하다. 하지만 독도교육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현재 한국 상황에서 매우 절실한 전략이기도 하다.

통일하여 표기하였음.

- 6) 김수희(2011) 「‘죽도의 날’ 제정 이후 일본의 독도 연구 동향」 『독도연구』 10, 영남대독도연구소, pp.171-200.
- 7) 송휘영(2015) 「일본 시마네 현 독도정책의 동향과 방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6(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pp.67-93.
- 8) 문철영(2016) 「독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영남대 독도연구소 학제간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21, 영남대독도연구소, pp.219-243.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박배근(2016)의 연구는 독도문제에 대한 외국학자의 연구내용과 동향을 고찰하여 영어로 된 독도정보와 지식발신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⁹⁾ 이에 더하여 이 연구는 제3국학자와 국민대상의 3인칭 차원에서 독도문제에 관해 누구라도 납득할만한 한국 측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논리개발을 중시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논리적 근거로서 일본정부가 독도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독도관련 한국학자들의 영어논문들이 한국 측의 독도 영유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공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여 일정부분 일리 있는 주장처럼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전략은 1995년 이후 일본 내 독도교육과 국민인식이라는 대전제를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가 시도하고 있는 독도연구 동향과 관련하여 1945년 이후 한국에서 독도관련 연구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계량적 조사와 통계분석을 시도한 논문은 오일환·이연식(2015)의 “국내 독도 관련 연구의 동향과 경향”이라 할 수 있다.¹⁰⁾ 이 연구는 194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1일까지 RISS에서 키워드로 독도를 입력하여 검색한 학술논문집, 저널, 학술지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방법은 어휘의 등장빈도, 발행연도, 저자, 학술기관명을 코딩하여 교차분석과 빈도분석, 네트분석 등을 시도하였다.¹¹⁾ 특히 이 연구에서 독도관련 시기별 연구추이와 기관별 논문발표추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독도관련 연구가 1995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¹²⁾ 같은 시기의 독도관련 주요어휘 빈도수에 대한 통계분석에서는 각 연구기관별 영유권, 분쟁, 영토, 역사, 교육, 국제법, 법, 어업, 주권 등의 키워드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단점은 한국에서 왜 1995년 이후 독도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주요 키워드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명쾌히 설명하지 못하

9) 박배근(2016) 「독도 문제에 관한 제3국학자의 연구동향」 『독도연구』 20, 영남대독도연구소, pp.143-164.

10) 오일환·이연식(2015) 「국내 독도 관련 연구의 동향과 경향-학술논문에 관한 통계분석을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10, 동북아역사재단, pp.4-31.

11) 독도연구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분포는 앞의 논문, 오일환·이연식(2015), p.12와 p.17참조.

12) 앞의 논문, 오일환·이연식(2015), pp.13-16. 이 연구에서는 독도연구가 활발히 등장한 배경에 대하여 1996년 독도학회 설립과 ‘독도연구총서’ 학술지 발간, 2005년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창립과 ‘독도연구’ 설립, 2006년 동북아역사재단 발족과 ‘동북아역사논총’ 발간, 그리고 2011년 이후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연구소와 ‘영토해양연구’ 발간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고 단순 통계적 수치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 연구는 한일양국에서 일련의 독도관련 사회적 변화와 정책적 전략의 추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독도문제는 한일양국, 특히 일본정치가들의 발언의 전유물이었고 정치적 사회적 여론을 민감하게 반영해 왔다. 그러나 독도관련 시기별, 기관별, 어휘별 단순 통계의 제시는 한국에서 독도연구의 통계적 수치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독도연구가 증가하게 된 사회적 요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기존연구에서 파생된 일본에서 독도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중앙부처의 독도관련 업무협력시스템을 고찰하고 기존연구에서 누락된 독도연구를 견인하는 한일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독도관련 연구동향의 사회적 요인에 대하여 키워드 분석을 통해 새롭게 조망하고자 한다.

3. 국내 독도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3.1. 독도 관련 연구 검색결과 분석

먼저 독도 관련 국내연구동향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와 국립중앙도서관(NLK: National Library of Korea)에서 키워드를 활용하여 검색하였다. 이들 두 학술정보기관은 웹사이트의 검색결과,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이나 국회도서관보다 독도관련 연구자료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독도관련 용어에서는 ‘독도역사’, ‘독도분쟁’, ‘독도영유권’, ‘독도영토’문제, ‘독도국제법’, ‘독도교육’, ‘독도교과서’ 등으로 분류하여 키워드를 검색하였다. RISS의 키워드검색은 1993년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 이유는 1993년 김영삼정부의 탄생 이후 역사바로세우기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였다. 독도에 키워드 검색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음 <표 2>에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RISS의 검색결과 전체적인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1992년까지 ‘독도역사’에 대한 연구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독도교육’에 관한 건이 124 건이었다. 기타 독도역사 관련 키워드는 거의 대부분이 키워드 검색결과에서 40건 전후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1993년 이후 연구동향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먼저 독도연구 동향에

대한 키워드 검색결과 ‘독도역사’가 총 2,296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였다. 다음이 독도영토문제가 1,577건, 독도영유권 1,284건, 독도교육 1,2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RISS연구정보자료에서 살펴본 1993년 이전 독도에 대한 연구동향은 독도역사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이후에는 독도역사와 교육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토문제와 영유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도 과거 독도에 대한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와 영유권문제에 관심에서 역사와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연구자료는 분석결과 1993년 전후로 구분할 수 있는 연구정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1945년부터 2017년까지 독도관련 키워드를 검색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자료에서 키워드 분석결과, 단행자료(도서, 학위논문, 전자책), 연속자료(전자저널, 학술기사), 멀티미디어(영상물, 컴퓨터파일), 웹정보자료(외부수집자료, 외부링크자료), 종합목록(국가자료종합목록) 등으로 구분되었다. 독도관련 용어에 대해 시기별 구분 없이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독도영유권 관련 키워드가 4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독도역사에 대한 연구가 380건, 독도영토문제가 317건, 독도교육이 280건, 독도분쟁이 17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에서도 독도역사와 교육에 대한 연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경향은 독도영유권이나 영토, 분쟁 등이 중요한 키워드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두 학술정보기관의 독도에 연구동향이 과거 역사와 교육적인 측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독도영유권과 영토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은 최근 독도영토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를 반영하는 연구결과로 풀이된다.

<표 2> 한국 내 독도 연구동향 내용분석(1993년 전후)¹³⁾

주제 별 키워드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국립중앙도서관(NLK: National Library of Korea)	연구의 주요내용 (논문 및 단행본 자료)
	1945년-1992년	1993년-2017년	1945년-2017년	
독도 역사	총 177건 학위논문 6건	총 2,296건 학위논문 217건	전체 380건 단행자료 172건	검색키워드-독도(최근연구) 전체 8,193건

13) RISS(<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검색일 2017.05.13.)),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nl/search/search.jsp?img=n&hanja=&sort=&desc=desc&all=on&topF1=total&kwid>(검색일 2017.05.14.))의 통합정보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국내 학술지 논문 9건 단행본 162건	국내학술지 논문 579건 단행본 1,478건 공개강의 8건 연구보고서 등 14건	연속자료 136건 멀티미디어자료 34건 웹정보자료 8건 국가자료종합목록 30건	<학위논문> 489건 독도영유권분쟁, 초등학생의 독도 지식과 인식, 독도문제 해결방안, 조선의 독도 인식과 관할, 독도주변 플랑크톤, 한국지리교과서 독도내용분석, 영토정책 등 <국내학술지논문> 2,343건 독도인식, 영유권 갈등, 독도 강제이탈, 이승만라인, 독도 관리시책, 시마네 현 독도홍보, 독도지속가능이용계획, 아베정부의 신안보법과 독도, 독도관련 법령, 독도인식과 교육 등
독도 분쟁	총 61건 학위논문 5건 국내 학술지 논문 11건 단행본 45건	총 992건 학위논문 178건 국내학술지 논문 345건 단행본 452건 공개강의 1건 연구보고서 등 16건	전체 171건 단행자료 58건 연속자료 91건 멀티미디어자료 8건 웹정보자료 1건 국가자료종합목록 13건	<학위논문> 489건 독도영유권분쟁, 초등학생의 독도 지식과 인식, 독도문제 해결방안, 조선의 독도 인식과 관할, 독도주변 플랑크톤, 한국지리교과서 독도내용분석, 영토정책 등 <국내학술지논문> 2,343건 독도인식, 영유권 갈등, 독도 강제이탈, 이승만라인, 독도 관리시책, 시마네 현 독도홍보, 독도지속가능이용계획, 아베정부의 신안보법과 독도, 독도관련 법령, 독도인식과 교육 등
독도 영유권	총 37건 학위논문 13건 국내 학술지 논문 8건 단행본 16건	총 1,284건 학위논문 192건 국내학술지 논문 608건 단행본 472건 공개강의 3건 연구보고서 등 9건	전체 499건 단행자료 149건 연속자료 221건 멀티미디어자료 4건 웹정보자료 2건 국가자료종합목록 123건	<학위논문> 489건 독도영유권분쟁, 초등학생의 독도 지식과 인식, 독도문제 해결방안, 조선의 독도 인식과 관할, 독도주변 플랑크톤, 한국지리교과서 독도내용분석, 영토정책 등 <국내학술지논문> 2,343건 독도인식, 영유권 갈등, 독도 강제이탈, 이승만라인, 독도 관리시책, 시마네 현 독도홍보, 독도지속가능이용계획, 아베정부의 신안보법과 독도, 독도관련 법령, 독도인식과 교육 등
독도 영토	총 42건 학위논문 4건 국내 학술지 논문 8건 단행본 30건	총 1,577건 학위논문 163건 국내학술지 논문 727건 단행본 671건 공개강의 5건 연구보고서 등 11건	전체 317건 단행자료 136건 연속자료 136건 멀티미디어자료 8건 웹정보자료 6건 국가자료종합목록 31건	<단행본> 5,307건 한국영토독도, 한국과 국제법, 일본의 독도분쟁지역화, 독도에 대한 일본인식, 독도 밀약, 독도 자연과 지리, 독도생태계, 독도 한일관계, 독도법적지위, 독도영토주권, 독도역사, 독도영유권 등
독도 국제법	총 41건 학위논문 7건 국내 학술지 논문 6건 단행본 28건	총 497건 학위논문 66건 국내학술지 논문 228건 단행본 196건 공개강의 2건 연구보고서 등 5건	전체 88건 단행자료 30건 연속자료 52건 멀티미디어자료 5건 국가자료종합목록 1건	<단행본> 5,307건 한국영토독도, 한국과 국제법, 일본의 독도분쟁지역화, 독도에 대한 일본인식, 독도 밀약, 독도 자연과 지리, 독도생태계, 독도 한일관계, 독도법적지위, 독도영토주권, 독도역사, 독도영유권 등
독도 교육	총 124건 학위논문 2건 국내 학술지 논문 5건 단행본 117건	총 1,212건 학위논문 140건 국내학술지 논문 202건 단행본 856건 공개강의 2건 연구보고서 등 5건	전체 280건 단행자료 110건 연속자료 113건 멀티미디어자료 37건 웹정보자료 6건 국가자료종합목록 13건	<단행본> 5,307건 한국영토독도, 한국과 국제법, 일본의 독도분쟁지역화, 독도에 대한 일본인식, 독도 밀약, 독도 자연과 지리, 독도생태계, 독도 한일관계, 독도법적지위, 독도영토주권, 독도역사, 독도영유권 등
독도 교과서	총 12건 학위논문 1건 단행본 11건	총 443건 학위논문 83건 국내학술지 논문 138건 단행본 218건 연구보고서 등 4건	전체 77건 단행자료 20건 연속자료 35건 멀티미디어자료 4건 웹정보자료 1건 국가자료종합목록 17건	<단행본> 5,307건 한국영토독도, 한국과 국제법, 일본의 독도분쟁지역화, 독도에 대한 일본인식, 독도 밀약, 독도 자연과 지리, 독도생태계, 독도 한일관계, 독도법적지위, 독도영토주권, 독도역사, 독도영유권 등

독도관련 키워드의 검색결과를 연도별, 정보제공기관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도역사’라는 단어로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를 살펴보면,

RISS에서 1993년 이후에는 독도역사관련 총 2,296건으로 학위논문 217건, 국내학술지논문 579건, 단행본 1,478건, 공개강의 8건, 연구보고서 등이 14건이었다. 그러나 NLK에서는 총 380건으로 단행자료 172건, 연속자료 172건, 멀티미디어 34건, 웹정보자료 8건, 종합목록 30건 등이었다.

다음은 독도분쟁이라는 용어로 검색한 결과를 살펴보면 RISS에서는 총 992건으로 학위논문 178건, 국내학술지논문 345건, 단행본 452건, 공개강의 1건, 연구보고서 등이 16건이었다. NLK에서는 전체 171건으로 단행자료 58건, 연속자료 91건, 멀티미디어자료 8건, 웹정보자료1건, 종합목록 13건 등이었다. 독도영유권에 관한 키워드 검색결과를 살펴보면, RISS에서는 총 1,284건으로 이들 중 학위논문 192건, 국내학술지논문 608건, 단행본 472건, 공개강의 3건, 연구보고서 등이 9건이었다. NLK에서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키워드 검색결과, 전체 499건으로 단행자료 149건, 연속자료 221건, 멀티미디어자료 4건, 웹정보자료 2건, 종합목록 123건 등이었다.

이번에는 독도영토문제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RISS에서는 총 1,577건으로 학위논문 163건, 국내학술지논문 727건, 단행본 671건, 공개강의 5건, 연구보고서 11건 등이었다. 그러나 NLK에서의 키워드 검색결과 총 317건으로 단행자료 136건, 연속자료 136건, 멀티미디어자료 8건, 웹정보자료 6건, 종합목록 31건 등이었다. 독도국제법을 둘러싼 키워드 분석에서는 RISS에서 총 497건으로 학위논문 66건, 국내학술지논문228건, 단행본 196건, 공개강의 2건, 연구보고서 5건 등이었다. NLK에서의 검색결과에서는 전체 88건으로 단행자료 30건, 연속자료 52건, 멀티미디어자료 5건, 종합목록 1건 등이었다.

다음은 독도교육에 관한 용어를 활용한 검색결과를 살펴보면 RISS에서는 총 1,212건으로 학위논문 140건, 국내학술지논문 202건, 단행본 856건, 공개강의 2건, 연구보고서 5건 등이었다. 그러나 NLK에서는 전체 280건에서 단행본자료 110건, 연속자료 113건, 멀티미디어자료 37건, 웹정보자료 6건, 종합목록 13 등이었다. 독도교과서라는 용어로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RISS에서는 총 443건으로 학위논문 83건, 국내학술지논문 138건, 단행본 218건, 연구보고서 4건 등이었다. NLK에서는 총 77건으로 그 가운데 단행본 자료 20건, 연속자료 35건, 멀티미디어자료 4건, 웹정보자료 1건, 종합목록 17건 등이었다.

요약하면 종합적으로 독도관련 논문의 키워드 분석결과, RISS에서는 독도역사>독도영토>독도영유권>독도교육>독도분쟁>독도국제법>독도교과서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NLK에서는 독도영유권>독도역사>독도영토>독도교육>독도분쟁>독도국제법>독도교과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2. 독도 연구의 키워드 검색과 내용분석

독도관련 국내 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은 RISS 전체 문헌을 분석하기에는 너무 자료가 방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독도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단행본, 공개강의,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키워드내용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독도관련 연구 건수는 전체 8,193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석사박사 학위논문은 총 489건으로 주요 내용은 독도영유권분쟁, 초등학생의 독도 지식과 인식, 독도문제해결방안, 조선의 독도 인식과 관할, 독도주변 플랑크톤, 한국지리교과서 독도내용분석, 영토정책 등이었다.

국내학술지논문은 총 2,343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독도인식, 영유권 갈등, 독도강치어렵, 이승만라인, 독도관리시책, 시마네 현 독도홍보, 독도지속가능이용계획, 아베정부의 신안보법과 독도, 독도관련 법령, 독도인식과 교육 등이었다. 단행본은 총 5,307건으로 키워드 분석결과, 한국영토독도, 한국과 국제법, 일본의 독도분쟁지역화, 독도에 대한 일본인식, 독도밀약, 독도 자연과 지리, 독도생태계, 독도 한일관계, 독도의 법적지위, 독도영토주권, 독도역사, 독도영유권 등이었다. 독도관련 공개강의는 총 13건으로 주로 2000년대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강의의 주요 내용은 독도영유, 독도이해, 독도문화, 일본우경화와 독도, 영토분쟁의 과거와 현재 등이었다.

다음으로 독도 관련 연구보고서 등은 총 41건으로 대부분이 2000년 이후에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은 독도영유권, 내러티브역사 독도, 배타적경제수역 독도, 독도어민의 생존전략, 독도분쟁, 독도이해, 독도일사랑, 독도문제와 일본의 국제법, 어업협정, 도서해양문화, 영토분쟁 등이었다.

요약하면, 독도관련 연구의 키워드검색과 내용분석 결과, 주요 내용은 시대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독도관련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 단행본 등의 주요 내용은 독도역사, 영유권갈등, 독도문제, 독도인식과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도관련 공개강의에서는 독도문화와 이해, 독도분쟁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도관련 연구보고서에서는 독도의 자원문화와 국제법 관련 문제들을 다룬 연구들이 많았다.

<표 3> 국내 독도관련 연구내용의 비교(1993년 전후)¹⁴⁾

비교연도	독도관련 연구 동향
1945년-1992년 독도연구 관련 연구목록 분석	검색결과 총 587건 학위논문 29건 키워드: 독도국제법, 한일관계, 독도영유권, 어업협정, 독도분쟁, 영토분쟁, 독도식생, 영유권 귀속, 영토취득과 국제법, 독도문제 등 국제학술지논문 76건 키워드: 독도반환, 영토분쟁, 독도선점론과 국제법, 국가 영역적 가치, 해양조사, 고유영토와 독도 영유, 독도식물과 토양, 독도탐사, 독도문제, 독도법적지위, 국제사법재판소, 독도선점론 등 단행본 478건 키워드: 일본제국주의, 한일어업분쟁, 독도영유와 침략, 영토분쟁, 국제법, 외교문제, 영토관계, 독도수비대, 관광자원, 관광지리, 독도문화론 등 연구보고서 4건 키워드: 독도 일사판과 수로기술, 자연보존협회조사보고서 등
1993년-2017년 독도연구 관련 키워드 분석	검색결과 총 7,614건 학위논문 460건 키워드: 독도주변자원, 영토취득, 독도연안어류, 독도생태계, 독도자생식물, 독도식물성장, 영토교육, 영유권 분쟁, 영토분쟁, 독도교육, 독도분쟁, 독도영유권과 국제법, 독도미생물, 독도생태계, 독도문제, 고등학교 독도, 초등학교 영토교육, 초등학교 영토인식, 외교 갈등, 교과서와 독도, 주변국 인식, 독도수업 등 국내학술지논문 2,267건 키워드: 독도인식, 영유권 갈등, 영토인식, 독도노래, 독도인식, 독도위상, 영토문제, 독도관련 법령, 독도문제, 영토문제, 독도연안, 독도홍보, 독도관리시책, 독도이용, 독도교육, 영토교육, 독도정서, 독도기술, 독도상륙, 독도침탈, 독도축제, 독도왜곡, 독도문제, 독도관광, 독도학술조사, 독도시설물 등 단행본 4,829건 키워드: 독도영유권, 독도분쟁, 독도인식, 독도영토, 영토주권, 독도밀약, 한일관계, 고유영토, 독도법적지위, 독도역사, 독도생태, 독도문제, 독도 고지도, 독도교과서, 독도교육, 독도정책 등 공개강의 13건 키워드: 독도이해, 독도문화, 역사교육론, 우경화와 독도, 역사의식, 영토분쟁 등 연구보고서 등 37건 키워드: 독도영유권, 독도어민, 독도분쟁, 독도인식, 독도정책, 해양문화 유형무형자원, 어업협정, 영토분쟁, 국제분쟁, 외교정책, 해양환경법체계 등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독도관련 연구들은 1993년을 전후로 연구동향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의 독도관련 연구가 역사적인 자료나 근거를 중시하는 경향에서 최근에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중시하는 영토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가설에 대하여 위의 <표 3>는 1993년 전후 독도관련 키워드 검색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동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우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993년을 전후로 독도관련 연구자료의

14) 이 표는 독도연구 관련 키워드 분석결과와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하였음.

양적인 변화는 검색시스템상 비교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관련 연구의 질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분석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그러면 독도관련 검색결과를 바탕으로 1993년 전후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3년 이전 독도연구 관련 키워드 검색결과 총 587건으로 학위논문 29건, 국내학술지논문 76건, 단행본 478건, 연구보고서 4건 등이었다. 이들 독도연구의 키워드 분석결과, 주요 키워드는 독도역사, 독도영유, 독도분쟁, 국제법 등이었다. 학술지논문에서 키워드는 독도영유권과 영토분쟁, 국제법, 독도문제 등이었다. 단행본의 키워드는 독도분쟁과 외교관계, 독도문화관광 등이었다.

다음은 1993년 이후 독도관련 키워드 검색결과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독도연구 관련 키워드 검색결과 총 7,614건으로 학위논문 460건, 국내학술지논문 2,267건, 단행본 4,829건, 공개강의 13건, 연구보고서 37건 등이었다. 독도관련 키워드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결과, 학위논문은 독도분쟁이나 영유권, 국제법 등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독도자원과 생태계, 독도교육과 인식에 관한 연구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학술지논문에서 주요 키워드는 독도교육과 독도인식, 영유권 인식, 영토교육, 독도주변 연안 어류 및 자원조사 등으로 나타났다. 단행본의 키워드의 경우에도 독도분쟁이나 영토주권이 여전히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독도생태나 교육, 정책 등에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공개강의나 연구보고서에서의 독도 키워드의 검색결과를 살펴보면 독도이해와 교육, 인식, 문화와 자원, 정책 등이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요약하면, 독도관련 키워드 검색결과를 종합해 볼 때 독도연구의 동향은 1993년 이전에는 독도의 역사와 분쟁, 영유권 국제법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1993년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독도의 이해, 교육, 인식, 정책, 문화자원 등으로의 독도연구의 다양성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정부의 독도의 지배정책과도 밀접하게 연동되어 한국에서도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나타나는 비슷한 연구동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독도에 대한 국제법적 영유권논쟁과 역사적인 사료를 둘러싼 고

유영토의 논쟁보다는 1993년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독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영유권 구축이라는 전략적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한국학계에서의 연구동향의 차이를 통해 그 변화과정의 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과생된 일본에서 독도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중앙부처의 독도관련 상호협력시스템을 고찰하고 기존연구에서 누락된 독도연구를 견인하는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키워드 검색을 통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국내 독도 관련 연구 동향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와 국립중앙도서관(NLK: National Library of Korea)에서 연구논문 데이터베이스 검색시스템을 통해 분석대상을 추출하고 서지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와 키워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도관련 연구는 한일 정치적 요인으로 촉발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치적 요인들은 1995년 김영삼정부에 의해 추진된 독도접안시설 건설, 2005년 독도 일반관광객 입도허가, 2012년 이명박대통령의 독도상륙사건 등에 의해 촉발되어 연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993년 전후 독도관련 연구에서 나타나는 논문의 키워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RISS에서는 독도역사>독도영토>독도영유권>독도교육>독도분쟁>독도국제법>독도교과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NLK에서는 독도영유권>독도역사>독도영토>독도교육>독도분쟁>독도 국제법>독도교과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1993년 전후 독도관련 키워드 검색결과를 종합해 볼 때 통계적인 수치에서는 1993년 이후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관련 연구동향은 1993년 이전에는 독도의 역사와 분쟁, 영유권 국제법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1993년 독도의 실효적 지배가 강화되기 시작한 이후 독도의 이해, 교육, 인식, 정책, 문화자원 등 연구주제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정부의 독도의 지배정책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한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넷째, 독도관련 연구동향은 통계적 수치, 키워드분석을 통해 살펴볼 때 사회적 정치적 촉발요인과 연구동향의 통계적 수치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독도연구에 대한 단순 통계적 수치결과의 제시보다는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에 대한 관련성 등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독도관련 연구는 1993년 전후 한일 양국의 사회적 정치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거나 해결하는 방식의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독도에 대한 한일 간의 갈등 해결책이 부재한 가운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토적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인쇄나 활자 등 교육교재를 활용한 독도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독도를 둘러싼 일본정부의 전 방위적인 독도 영유권의 정책적 추진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처방안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정부가 일본을 대상으로 독도를 둘러싼 당면과제가 무엇인지를 사회적 요인 측면에서 파악하여(예를 들면 독도에 대한 이해와 교육 등)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參考文獻】

- 김성은(2013) 「부산지역 언론의 독도 관련 보도경향과 인식: 이명박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기점으로 『서강인문논총』 38, 서강대인문과학연구소, pp.397-436.
- 김수희(2011) 「'죽도의 날' 제정 이후 일본의 독도 연구 동향」 『독도연구』 10, 영남대독도연구소, pp.171-200.
- 문철영(2016) 「독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영남대 독도연구소 학제간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21, 영남대독도연구소, pp.219-243.
- 박배근(2016) 「독도 문제에 관한 제3국 학자의 연구동향」 『독도연구』 20, 영남대독도연구소, pp.143-164.
- 이성환(2014) 「일본의 독도관련 연구의 새로운 동향과 분석」 『일본문화연구』 49, 동아시아일본학회, pp.307-325.
- 오일환·이연식(2015) 「국내 독도 관련 연구의 동향과 경향-학술논문에 관한 통계분석을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10, 동북아역사재단, pp.4-31.
- 송휘영(2015) 「일본 시마네 현 독도정책의 동향과 방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6(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pp.67-93.
- 최진옥(1996) 「독도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 『독도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철호(2007) 「독도에 관한 역사학계의 시기별 연구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40, 한국근현대사학회, 200-221.
- 허영란(2002) 「독도 영유권 문제의 성격과 주요 쟁점」 『한국사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pp.209-246
- 현대송(2014) 「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 『한국정치학회보』 48(4), 한국정치학회, pp.49-73.
- 坂本悠一(2016) 「近現代における竹島・獨島領有問題の歴史的推移と展望—ナショナリズム・グローバリズム・ローカリズムの交錯—」 『社會システム研究』 32, 立命館大學社會システム研究所, pp.16-17.
- 일본의 독도도발, 망언일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rthurphilip&logNo=10145634>

204(검색일 2017.05.16.)

산케이신문 독도문제기사: http://japwar.com/bbs/board.php?bo_table=b001&wr_id=1060&page=34

(검색일 2017.05.16.)

RISS(<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검색일 2017.05.13.)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nl/search/search.jsp?img=n&hanja=&sort=&desc=desc&all=on&to>
pF1=total&kwd(검색일 2017.05.14.)

讀賣新聞 (2016.02.14..) 보도기사 참조.

투 고 일 : 2017. 08. 22.
심 사 일 : 2017. 10. 26.
게재확정일 : 2017. 10. 27.

< 要旨 >

独島に関する国内外における研究動向と社会的要因の考察

林永彦・金泰永

本研究の目的は独島に対する研究の動向が1993年以降、韓国と日本でどのように変化してきたかについて社会的認識と領有権問題に焦点を当てて明らかにすることである。分析の対象は韓国学術研究情報サービスと国立中央図書館における国内独島関連研究動向とした。分析の結果は次の通りである。第一に、独島関連研究は韓国と日本の社会政治的要因によって触発される傾向が見られた。第二に、1993年以降、一般的に独島に関する研究の関心が独島歴史と領有権問題から独島教育と国際法へと移った。第三に、独島関連研究は1993年以降急増し、研究テーマも多様化していることが判明した。第四に、独島研究の動向は韓国と日本の社会的要因によって左右されることが多かった。結論としては、独島関連研究の動向として、韓国が独島に対する領土の実効支配を強化する中で、日本は印刷物と活字マスコミなどの教育教材を活用した独島支配を強化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Social Factors to Explain Dokdo-related Research Trends in South Korea

Yim, Young-Eon · Kim, Tae-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search trends regarding Dokdo involving both Korea and Japan after 1993. The method of study analyzes contents related to Dokdo from the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an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many cases, social and political factors in Korea and Japan sparked interest in Dokdo-related research. Second, interest related to Dokdo emerged, as people became interested in history and territorial issues within the fields of education and international law after 1993. Third, Dokdo research suddenly increased after 1993, and the research topics became more diversified. Fourth, Dokdo research has a tendency to be influenced by the social factors of Korea and Japan.

In conclusion, regarding Dokdo research, Japan's approach was through print and mass media, while Korea tightened its control over Dokdo.